



법조계,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月刊 『考試界』가 창간 5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月刊 『考試界』는 1956년 6월 창간 이래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수험 정보와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수험생의 길잡이이자 법적 쟁점에 관한 우수한 논문과 최신 판례 동향을 게재하는 법률전문지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다정한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月刊 『考試界』가 오늘날의 이러한 위상을 갖추기까지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 법조인들이 몸담게 될 법률시장은 크고 작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수가 1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사법시험 선발인원과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 조만간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시장은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모델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법률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호사들 간의 능력의 격차는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 간의 이른 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신 현 윤

-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들은 보다 낮은 자세로 다양한 방면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복잡다기한 우리 사회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국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법치행정, 사적 영역에서 준법경영, 그리고 공익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베풀어 줄 때, 법조인들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은 종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아침의 입신양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과 이루어진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법률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 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변호사 간의 능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지난 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6억 5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외국 로펌의 국내 영업이 완전히 허용되는 3단계 개방(2016년 7월) 이후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무장한 외국 로펌들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로펌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던 독일의 경우 상위 10개 토종 로펌 중 8개가 외국계 로펌에 합병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단계적 개방의 과정을 거쳤고,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위 1~5위로

뽑은 여전히 토종 로펌이 지킬 수 있었으나, 6~20위의 로펌은 대부분 영미계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선택하거나 합병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법률시장 개방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률시장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조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로펌들이 우리 법률시장을 지키고,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나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쟁력은 결국 전문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가 힘을 모아 각 로스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화·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月刊 『考試界』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月刊 『考試界』 창간 57주년을 축하드리며, 미래 법조인인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식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험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법률전문지로서 계속 발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